

참여정부 전·현직 관료, 지자체 고위 간부, 前 국회의원들...

총선 앞둔 지역정가 '거물들의 각축장'

물갈이 바람·정치권 사면·복권 등 변수 겹쳐 혼전

18대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자전타전의 출마 후보자들이 줄을 이으면서 광주·전남이 거물급 정치인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다. '물갈이론'과 '다자간 경쟁 구도 불가피론'이 이번 총선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광주·전남권에도 각 당의 대표급 인사는 물론 장·차관급 신진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뜻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진 인사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세력은 '참여정부 전·현직 고위 공직자 출신 그룹'으로, 현재까지 7~8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들 고위 공직자 그룹의 선두 주자 격으로, 광주 북갑에 일찌감치 출마표를 던져놓은 상태

다. 장 장관은 정부 예산을 '위락파락'하는 핵심 부처인 기획예산처의 수장으로서,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광주 서구나 광안에 뜻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국제청장, 전 관세청장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이 장관은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도 '고위 공직자 그룹'에서 빼놓을 수 없다. 호남인맥의 대부분을,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위직을 두루 거친 전 원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는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꼭꼭나 해남·진도 출마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으로 '고위공직자 그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광주를 문화수도로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장서 왔다는 공로를 내세우며 광주 서갑을 공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이 광주 북을에 출마의사를 밝혔으며 임상규 농림부 장관과 김종빈 전 검찰총장(여수), 김승규 전 국정원장도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김동신 전 국방장관도 광주 북갑 출마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들의 총선 출마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신당 소속으로 강진·완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날 중 공직을 사퇴한 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심재민 전 광주 시 부시장 역시 일찌감치 광산구 출마를

거정사실화하고 민심을 다지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그룹도 강력한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박주선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 정치생명을 걸고 광주 동구에 출마표를 내밀었으며, 김경천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최근엔 강운태 전 의원이 또다시 남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지난 연말 사면·복권된 한화갑·박지연·이정일 전 의원들도 국회 입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선 통합신당의 물갈이 바람과, 참여정부 고위 인사들의 퇴진, 그리고 과거 호남정치 중진들의 사면·복권 등 굵직한 변수들이 겹쳤다"면서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는 만큼 치열한 혼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 특위 구성 인재 영입 나서

민주당은 3일 공동대표추천 및 인재영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선 출마 인사 영입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인기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 신낙균 전 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고재득 사무총장 등 당, 학계, 법조계 인사 12명을 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위는 참신성, 전문성, 도덕성 등 총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기로 했다"며 "또 중도개혁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인사들에게 기회를 뛰어넘어 문호를 개방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영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인수위를 보는 호남의 눈



임동욱

서울취재팀장

이명박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를 바라보는 호남 민심의 반응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인수위 구성에서 영남 출신 인사들이 중용된 반면, 호남 출신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위원과 민간 실무진 등을 제외한 인수위원 76명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영남 출신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40명에 이르는 반면, 호남 출신은 겨우 7명에 불과했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위원 34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15명인 반면 호남 출신은 5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는 "인수위 구성은 출신 지역 등을 안배하기보다는 실무적인 능력을 최우선 발탁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출신보다는 능력 우선의 '실용주의 우선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호남 민심은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라는 명분 아래 지역적 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또한, 이러한 기초가 계속된다면 타지역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호남지역 현안 사업들이 외면받거나 정부 부처에 포진한 호남 출신 인재들의 인사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과거 영남 군사정권에서 벗어났던 '호남 푸대접'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과거형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호남을 방문, "정책적으로 호남을 배려하고 향후 국정 의정부호를 호남이 담당하는 정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광주·전남은 민주화를 뛰어 넘어 호남 번영의 시대로 가야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으로 당선된 12월19일 밤, 이 당선인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영·호남 갈등을 넘어선 '사회통합'을 주장했다. 영·호남 갈등을 넘어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지역적 배려를 하는 것이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이 당선인이 내세운 사회통합의 진정성은 이날 25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국무총리 및 정부 조각 발표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당선인이 호남 배려라는 서진정책(西進政策)으로 사회통합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실용을 명분으로 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과 관련한 인사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tuim@kwangju.co.kr

광주시의회 민주 의원 10명 "당 지도부 사퇴하라"

정가풍향계

김동신 前 장관 8일 출판회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이 오는 8일 오후 3시30분 광주 감대중견벤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40년 군 생활을 되돌아 본 '군인의 길을 걷다'라는 자서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육군참모총장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루 거친 김 전 장관은 민주당 후보로 광주 북갑에 출마표를 던질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40년 군 경력을 지역사회 발전에 쏟아 붓겠다"며 강력한 출마 의지를 피력.

○--김승남(43)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6일 열리는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가진 간담회에서 18대 총선 출마 의사를 표명.

그는 3일 "광산지역은 기존 정치인들보다 젊은 정치 신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 같다"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출판기념회를 겸한 '영산강 뱃길 복원

사건전'이 5일 오후 2시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 조경관에서 개최.

이번 사진전에는 영산강의 4계절과 배가 다녔던 모습 등을 담은 80여 점의 사진이 출품되며 이 전 최고위원은 '물길따라 가는 대한민국 자전여행' 등 2권의 자서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근태 추대하자" 성명서

○--광주·전남지역 일부 정치인·사회단체 인사들이 3일 '김근태 고문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 창출을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

이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1만인 제안자 일동'명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일당 독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신당은 한나라당을 견제할 선명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김근태(고문)를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의 민주적 리더십 창출을 기대한다"고 언급.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10명이 3일 성명서를 내고 박상천 대표와 당 지도부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 이철원 부의장, 손재홍 의원 등 10명은 이날 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

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는 등 과감한 인적 쇄신만이 외면한 민심을 되돌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 대표와 지도부는 어떤 형식으로도 대선 참패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실상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

민화식 前 해남군수 출사표

○--민화식(68) 전 해남군수가 오는 제18대 총선에서 해남·진도 지역 출마를 선언.

민 전 군수는 3일 해남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군수 임기 도중 도지사사 출마해 군정에 혼란을 일으킨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속죄하는 길은 국회의원이 돼 일로써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선 방식을 채택한 당에 출마해 정정 당당하게 선거를 치를 계획이지만 투명하지 않은 경선이 진행된다면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합민주신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3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및 상임고문단 연석회의에서 쇄신안에 대해 오충일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 쇄신안 후폭풍 소용돌이

당 대표 '합의 추대에 경선과 "미봉책" 강력 반발'

갈길 바쁜 대한합민주신당이 쇄신안 후폭풍에 흔들리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선 참패 수습용으로 마련된 쇄신안이 오히려 당을 전면적 갈등의 화오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쇄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위원회의가 대한합민주신당의 진로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신당 쇄신위원회는 3일 당 대표를 합의 추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마련, 최고위원-상임고문단 연석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대철 상임고문은 3일 최고위

원-상임고문단 연석회의 후 기자회견담화를 갖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정 고문은 "합의추대라는 미봉책으로 총선에서 '270대 30'이라는 실질적인 야당의 궤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뒤 "경선만이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경선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그림자를 걷어주면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당내에서는 정동영 그룹 일부와 김한길, 천정배, 염동연 의원, 추미애 전 의원 등이 경선론을 주장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활의 문 재수권문 공개토학원

1. 변화는 강자에게, 변화는 일시적도, 변화는 시기에 우연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학원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공개토학원 뿐입니다.

2. 통합시스템을 통해 시 전 시간 체계화 학생편의를 보장합니다.

3. 세 수선시 완벽한 합격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10만원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료 10만원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영어능력검정시험

1. 영어능력검정시험 응시료 10만원

2.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료 10만원

3.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4.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5.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6.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7.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8.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9.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10.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후 10만원

수업료

1. 수업료 10만원

2. 수업료 10만원

3. 수업료 10만원

4. 수업료 10만원

5. 수업료 10만원

6. 수업료 10만원

7. 수업료 10만원

8. 수업료 10만원

9. 수업료 10만원

10. 수업료 10만원

합계는 시간+전체는 과정+변화는 평생학습의 시작입니다

010-1568-0165